



충성대신보



▲ 제33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장달수 소장이 서욱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있다.

제33대 학교장 장달수 장군 취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함으로써
 상하등욕자승(上下同愆者勝)하는
 학교문화 만들어 나갈 것!

지난 5월 10일 본교 충성연병장에서 제32대·33대 학교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제32대 학교장 황대일(육사 43기) 중장이 이임하고, 제33대 신임 학교장으로 장달수(3사 21기) 소장이 취임했다.

육군참모총장(대장 서욱)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은 총동분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접 부대장 및 지역 기관장, 대학·자매단체를 비롯한 내외귀빈과 장병, 군무원, 사관생도 등 약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보직교대 신고에 이어 본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명령 낭독 ▶부대기 이양 ▶열병 ▶이·취임사 ▶참모총장 훈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모총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훈신의 노력을 다하여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강하고 스마트한 초일류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혁신을 추진한 황대일 장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충성대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뛰어난 특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임하는 제32대 학교장 황대일 장군은 "사관생도들은 우리 육군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각자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헌신적 리더십, 창의성 발휘를 위한 풍부한 지식과 올바른 품성, 미래 군사전문가에게 필요한 소양 등을 갖추기 위해 전력투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33대 학교장으로 취임한 장달수 장군은 "학교의 발전은 학교장 혼자만의 다짐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고, '졸탁동시(倅喲同時)'한다는 자세로 생각을 공유하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육군3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임 장달수 학교장은 3사 21기 출신으로서 53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 11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따뜻한 리더십과 전략적 소통능력을 갖춘 탁망 있는 장군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날 이임한 황대일 장군은 제1군단 군단장으로 취임했다. **주간 고성진**

호국보훈(護國報勳)이란 '나라를 지키다'의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의 보훈이 합쳐진 말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 및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올해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였다. 제 64회 현충일을 맞아 사관생도들이 영천 호국원을 찾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경례를 하고 있다.

하사 김현석



- 02 학교소식 |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 03 학교소식 | 화랑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 04 기획취재 | 배우 한윤지
- 지면안내
- 06 생도광장 | 추천명화·책소개·생도칼럼
- 07 독서투고 | 소령(진) 이민재·대위 강준구
- 09 오피니언 | 안양대 학교 총장 장병집
- 11 교양 | 건강상식·만화
- 12 기타 | 학교발전재단 소식·문학상광고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천 호국원 및 교내 충혼비 참배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와 56기 사관생도 340여 명은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영천 호국원을 찾아 추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추모묵념, 헌화, 분향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조국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어서 교내에 위치하고 있는 충혼비로

이동하여 지휘근무생도와 대구·경북지역 동문회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재원 생도(56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된 정예장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배하고 있다.

검도부, 전국대학검도연맹전 우승 쾌거

육군3사관학교 검객들 전국 제패

본교 검도부가 지난 5월 10~12일 3일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국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1회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대학검도연맹전은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 2회 개최되는 대회로, 대학부 검도경기에서 가장 권위 있고 수준 높은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춘계대회는 올해 첫 시합으로 모든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온 대회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본교 검도부

는 남자 동아리부에서 단체전(김한기·김경민·안성현·허현준·김도현·이상혁 생도)과 개인전(윤호원 생도)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검도부 지도간부 염규현 대위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생도들의 집중력과 끈끈한 팀워크 때문이다”라면서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본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승을 차지한 56기 윤호원 생도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어서 기쁘다. 다음 추계대회 때에도 참가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6기 기자생도 최정운



▲ 제61회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을 평정한검도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 영천시 한마음 콘서트 개최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지난 5월 19일, 영천 실내 체육관에서 본교와 한국예종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진 ‘한마음 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진 신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이번 한마음 콘서트는 영천 태권도 팀의 ‘아리랑 태무’ 공연을 시작으로 평소 자주 접할 수 없었던 군악대 연주, 2작사 의장대의 절도 있는 시범 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인기 연예인 출신 용사(2PM-준케이)의 공연과 5인조 걸그룹 러스티의 무

대, 왕평가요제 출신 가수 박혜민의 신나는 공연이 어우러져 영천 실내 체육관을 뜨겁게 달구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한마음 콘서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줘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협력하여 화합하고 고급스러운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성대 사관캠프 등 다양한 민·관·군 화합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본교는 올해도 민·관·군이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56기 기자생도 유동엽



▲ 군악대장(김명훈 소령)의 지휘아래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리고 있다.



화랑의 후예, 화랑정신을 계승하다!

육군3사관학교, 화랑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본교(학교장 소장 장달수)는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 화랑도 정신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정신을 사관생도들의 리더십으로 계승하고자 화랑리더십 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화랑리더십 캠프는 1박2일씩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3학년 사관생도(56기)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1차를 실시하였고,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차를 실시하였다.

화랑리더십 캠프는 신라 화랑의 정신과 맥을 이은 사관생도들이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 가운데 하나였던 팔공산 일대의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화랑도 정신을 이해하고, 화랑도 정신교육과 성찰, 치유의 시간 등을

통해 리더로서 사관생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화랑도였던 김유신 장군이 직접 수련했다고 알려진 은해사 중암암과 주변의 명승지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심신의 단련은 물론,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고, 나아가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인 3사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화랑리더십 캠프를 수료한 56기 이동혁 생도는 "화랑리더십 캠프를 통해 사관생도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화랑인 사관생도로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굳게 지닌 정예장교로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리더십센터장 두석주 중령은 "화랑리더십 캠프는 사관생도들에게 화랑의 후예다운 리더십을 함양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인재로서 소양을 확립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보다 다양한 인성 및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대와 소통하고 존중과 배려할 줄 아는 정예장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이경희



▲ 화랑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사관생도들이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화, 축구대회·가족 한마당 축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화가 주최하고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화 축구연합회와 3사26기 동기축구회가 공동 주관한 제13회 3사 총동문 축구대회 및 가족 한마당 축제가 8일 경기도 용인 원삼축구센터에서 개최됐다.

총동문의 발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인하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화장을 비롯해 인치원 신악회장 등 회장단 및 동문들과 가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용인지역 유소년 축구 꿈나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축구대회는 전국 지역별 8개 팀으로 편성돼 2개 조로 구분, 조별 리

그전 후 각 조 1위 팀끼리 결승전을 갖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남자 족구 및 여자 피구, 가족 2인 3각 릴레이, 명랑운동회 등의 게임이 열리며 서로 간의 도타운 정을 나눴다.

특히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 중인 26기 김창남 동문은 저녁 비행기로 현지를 출발해 이날 아침 귀국, 축구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3사26기 축구동 기회장 신현성 동문은 "총동문화의 배려로 '3사26기 임관 30주년 기념'이라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임관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5기 기자생도 김관웅



▲ 총동문화 축구대회·가족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 참가, 우수상 수상

독립·광복군 정신을 이어받는 사관생도의 열정

지난 5월 22일 공군사관학교 인종근홀에서 열린 '2019 심포지엄'에 본교 사관생도 14명이 참가하여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참 군인의 리더십, 독립군·광복군 군인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육·해·공군의 사관생도 95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본 행사에 앞서 독립군과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창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의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되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또한 사관생도들이 제작한 UCC영상과 공사 군악대의 독립군가 공연이 함께해 독립군과 광

복군의 뜨거운 열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 이수현·박진우·최재원·윤진석 생도(이상 55기)는 '격렬한 독립운동의 비책,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백현성·고은비·김지영·정찬웅·이석재 생도(이상 55기)는 '최진립 장군, 통심정(通心情)으로 오늘까지 통하다'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승환·김신성·주시은·백현우·한혜진 생도(이상 55기)도 '소프트 리더십으로 미래를 선도하라!'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이수현 생도(55기)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군과 광복군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에 헌신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대위 손아리



▲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에 참가한 사관생도들

국군간호사관학교 수탁교육 진행

본교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국군간호사관학교 1·2학년 생도 173명을 대상으로 하계군사훈련 수탁교육을 진행했다.

수탁교육중인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각개전투·개인화기·수류탄 등 군 기본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2학년 생도들은 분대전투·독도법 등 소부대 전투기술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교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Why? 캠페인' 방법을 적용해 사관생도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하고, 묻고 답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실제 예년과 다른 높은 교육 참여도와 호응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수탁교육기간 중이던 지난 6월 20일에는 태국 왕립 육군간호사관학교장(소장 아차라 우라이렛)과 공군간호사관학교장(와차라판 빠오르히), 영국 국방예비군 대표단 등 13명의 태국군 장성과 의무요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수탁교육중인 사관생도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수탁교육 중이던 2명의 태국 사관생도들이 본교에 수탁교육중임을 알고, 훈련 중인 생도들과 교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학교를 방문하고 훈련장을 둘러본 태국 왕립 육군간호사관학교장 아차라 우라이렛 소장은 "육군3사관학교의 교육훈련체계와 훈련장 시설에 놀랐고,

교육에 대한 사관생도들과 교관들의 열정에 감탄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사관생도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태국 왕립 간호학교 간부들이 교관으로부터 훈련관련 브리핑을 받고있다. 55기 기자생도 정용진



“백발백중 백송이 하사, 팔색조 매력” 배우 한윤지



▲ 56기 금성혁 생도(좌) · 55기 고명환 생도(우)가 배우 한윤지(중앙)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부대와 보직을 유머 있게 소개하며 진행하고 있는 육군 웹드라마 <백발백중>. 그중에서도 항상 밝은 웃음과 넘치는 매력으로 군인들을 사로잡은 것은 백송이 하사다. 일반인에서 배우로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배우 한윤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윤지는 1996년 9월 24일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Q 육군에서 웹 드라마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의 기분과 특별히 제의에 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본가가 홍천이라 방학 때마다 아는 이모네 힛집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는데 그 당시 웹드라마 관계자 분들과 육군 11사단 간부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평소처럼 손님과 알바생의 관계로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관계자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과를 다녔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웹드라마를 제작 중에 있다고 하셔서 저에게 간부 역할을 제안하셨어요. 사실 연예인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서 내심 기뻐지만 제가 연기력을 보여준 적도 없고 웃차림도 평범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쯤 진짜 연락이 오셔서 바로 오디션 없이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Q 연예인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고 하셨는데 배우를 하고 싶었나요?

A 초등학교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소심했던 게 선생님이 발표시키면 울고 또 앞에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꿈은 연예인이었죠.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집에서 혼자 당시 유행하던 소녀시대, 원더걸스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면서 놀았어요. 어릴 적에 친구들의 꿈을 물어보면 다들 의사, 검사, 판사인데 혼자 연예인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치과의사라고 속였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했었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도저히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부를 들어갔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꿈을 키우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 육군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데 한 몫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 군대를 다 전역했지만 촬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상·병장을 할 때였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친구라고 자랑하고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얘기해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예전엔 저도 군대에 대해선 하나도 몰랐다가 하나 하나 찍으면서 이제 배우는데 그 영상들이 이제 막 입대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역을 하신 분들에게는 추억거리로 회상이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도 와요. “백송이 하사님, 저 영상을 봤던 시청자인데 백발백중 드라마 잘보고 군대 들어갑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큰 보람도 느낀답니다.



▲ 백발백중 당시 예복을 입고 촬영하고 있는 모습

Q 촬영을 하면서 느낀 타 군부대와와는 다른 육군3사관학교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사실 3사관학교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촬영을 갔을 때 계시던 학교장님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까지 아껴처럼 다정하게 잘해주는 분도 처음 봤었고 열정마저 가득하신 분이였어요. 제가 여태껏 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당시 생도분들도 단합이 잘되었던 것 같아요. 또 촬영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학교장님께서 소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모두들 장군이 직접 구워주는 고기를 먹는 것은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많이 좋아했어요. 평생 잊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Q 항상 입던 전투복과는 다른 사관생도 예복만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A 인형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군인하면 저는 군

복만 있는 줄 알았고 군복 아니면 헌병특임대 옷 같은 전형적인 군인 옷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사관학교에서는 하얀 예복을 입으니 더 인형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제가 언제 그런 걸 입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옷 자체가 너무 예뻐요. 옷을 입을 때도 하나 하나 챙겨야 하는 게 많아서 어려웠는데, 당시 옷을 빌려줬던 여생도가 제 복장에 대해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너무 편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때 여생도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Q 사관생도는 고된 훈련과 학업 속에서 한 번쯤 지칠 수밖에 없는데 조언해줄 수 있는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나요?

A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혼자 노래방을 가요. 저는 괜히 누군가랑 같이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면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괜히 박자를 맞춰야 할 것 같든지 음정을 틀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남 신경 안 쓰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영화를 보면서 눈치 안보고 크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사실 사람이랑 계속 붙어있으면 지치기 마련인데 고되거나 지칠 때는 혼자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좋은 방법 같아요.

Q 백발백중 시즌4가 진행되고 있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A 우선은 제가 소속사가 아직 없어서 소속사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또 다른 작품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웹드라마 말고도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도 꼭 해보고 싶고 예능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진짜 사나이 같은 프로그램도 나가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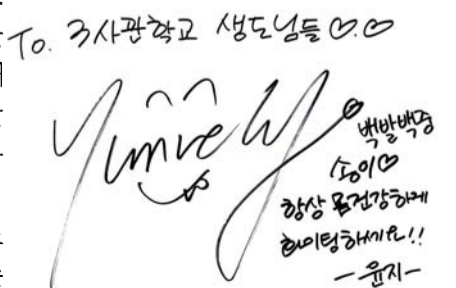
Q 배우 한윤지로서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 및 매력은?

A 저를 사적으로 만나지 않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걸크러쉬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생긴 모습은 되게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성격은 너무나도 밝고 친동생 같은 이미지예요. 사실 원래 성격은 지금 인터뷰보다 더 활발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부분이 제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담으로 제가 교회에 나갔을 때 목사님이 저의 첫 모습을 보고 되게 차갑다고 생각하시고 저로 인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를 알게 된 순간 ‘아, 애는 그냥 순수한 아이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만큼 반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앞으로 정예장교가 될 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A 제가 간접적으로만 군대 경험을 해봤고 일부밖에 모르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꼭 챙기시고 다치지 않게 군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위험한 일도 많을뿐더러 다칠 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임관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관생도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55기 지생도고명환, 56기 지생도금성혁



훈육대 소개: 7중대 끈기의 상징, 권율 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7중대의 상징은 권율 장군이다. 1999년에 지정되었는데 권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권율은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장수로서, 임진왜란 중반부터 종전까지 조선군의 총사령관인 도원수를 맡아 조선을 지켜낸 장군이다. 재미있는 일화로 행주대첩 당시 행주산성을 둘러싼 왜군에게 부하를 보내 "내가 말채찍을 떨어뜨렸으니 찾아서 돌려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고 이에 왜장은 부하들을 시켜 말채찍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벌어진 전투에서 밤새 말채찍을 찾던 왜군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권율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7중대는 임진왜란 당시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선을 지켜냈던 권율 장군의 끈기, 조국에 대한 헌신하는 자세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중대가

화산의 정기 받아 일어난 우리
오늘도 꿈을 안고 여기에 섰다
불같이 타오르는 정열을 안고
충성대의 날개 편 정의의 7중대
피 끓는 젊음을 조국을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리라
아아 자랑스러운 우리는 유니콘 중대
늠름하다 굳센 방패 선봉 7중대



#3 중대 좌우명

“적당히 타협하지 말자”

#4 훈육대장(소령 김용민)에게 묻다

7중대 훈육대장으로서의 훈육 방침은 무엇인지?

인성과 품성을 기초로 한 자율과 책임 준수이다. 생도들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는 의미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지휘근무자들에게 자율을 보장해 주었다. 그 결과, 7중대는 중대장생도를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을 준수하는 중대로 변모하게 되었다. 생도들은 지금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스펙을 쌓는 것보다, 인성과 품성을 함양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한 생활을 해 주었으면 한다.

7중대 생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사랑한다. 지식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생도들을 보면 모습이 제각각이다. 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생도들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도 같이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도기간은 시행착오를 겪어보며 무엇이든 배우고 지휘도 해보며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10년, 20년 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생도들을 대하고 있다.

훈육대장님의 좌우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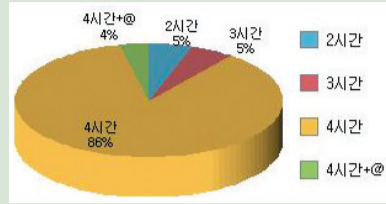
“적당히 타협하지 말자”로써 생도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좌우명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대중하려 하지 않고 제대로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한 좌우명이다. 그리고 생도시절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지키겠다고 생각한 13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 “외적 자세는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도 매일 거울 앞에서 경례 자세를 확인한다. 두발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구두도 광이 나게 한다. 또한, 생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생도들이 볼 때 다림질을 한다. 임관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직접 다림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많은 생도들은 군 생활에서 장성이 되기를 원한다. 외적 자세가 미흡한 장성을 본 적이 있는가? 외적 자세는 기본이다. 이에 생도들도 늘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5기기자생도 현선학

생도 앙케이트

문화체육활동 시간 감축에 대한 생도들의 의견



올 2학기부터 수요일 문화체육활동 시간이 기존의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생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 16일 목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제는 ‘2학기 문화체육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였으며, 답안은 ‘현재 체제인 4시간이 좋다’, ‘현재 체제와 2학기 체제의 절충인인 3시간이 좋다’, ‘2학기 체제인 2시간이 좋다’, ‘4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다’로 구성되었다.

총원 1,004명 중 90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 결과는 908명 중 777명(약 85.6%)이 4시간, 53명(약 5.8%)이 3시간, 48명(약 5.3%)이 2시간, 30명(3.3%)이 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생도들이 문화체육활동 시간으로 현행 4시간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4시간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A생도는 “부대 밖으로 나가는 몇몇 부서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2시간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B생도는 “문화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학습과목이다. 하지만 시간이 줄어들고 중간고사·기말고사와 같이 문화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까지 제외시킨다면 다양한 역량 개발에 제한이 생길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문화체육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경우 시간적 제약에 따라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생도가 대부분이다.

현재 문화체육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외의 실습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로는 승마부, 사진부, 국궁부, 야구부, 골프부 등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교의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는 현대 군조직의 특징을 고려하면 문화체육활동은 다양한 역량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현재 본교의 시설만으로는 제한 사항이 있어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문화체육활동 시간이 조정되어 왔다. 문화체육활동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학습 활동에 다소간의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활동은 생도들의 취미생활과 특기개발 및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으로 생도들이 일반학시간 또는 자신이 혼자하지 못했던 것들을 문화체육활동 시간에 진행하며 본인들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다. 문화체육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문화체육활동 시간을 현행 4시간으로 충분히 보장한다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래 군을 넓은 시야와 폭넓은 경험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관생도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56기 기자생도 윤서규 송승환

생도의 가치

사관생도의 가치

군대에서 명예를 존중한 것은 꽤 오래된 역사이다. 16세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기사도 정신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정당한 결투를 포함한 주군에 대한 충성, 함께 하는 동료들에 대한 전우애,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서 기사들만의 명예가 존재했고, 현재 군대에서의 명예도 이와 유사하다. 그만큼 명예는 전통을 가진 소중한 가치이다. 사관학교에서 첫 시험을 치르며 명예시험 제도를 경험했다. 우리는 명예심 고취를 위해 무감동으로 시험을 보는 명예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각종 학과시험을 보는 것으로 시험장에 감독자가 위치하지 않는다. 또한 시험이 끝나기 전에 모든 사관생도가 규정된 시간에 맞춰 시험을 종료하며 교반장 생도가 교반 전체인원의 답안지를 걷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우리 사관생도는 명예를 비롯한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로부터 선택받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생도 1명을 교육하는 데 평균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사관학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가 우리

에게 지극정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곧 조국의 미래이며 조국의 간성이 될 동량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선택받은 인재로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안중근 장군이 남긴 ‘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자세를 가슴깊이 새겨나가야 한다. 특히 호국간성답게 순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순명이란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을 넘어, 죽어야 할 때 죽을 줄 아는 용기를 뜻한다. 우리는 장교가 되고자 하는 사람답게 ‘爲國獻身 軍人本分’의 가치를 잘 계승해야 할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가공대상이 되는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보석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돌맹이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관생도는 군에서 현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최고의 대접을 받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저 그런 보조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관생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를 드높이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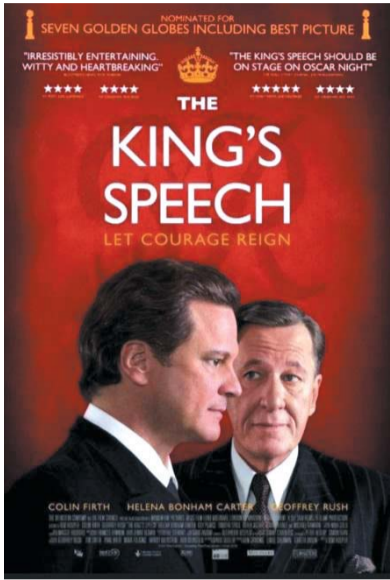
56기 기자생도 이선빈



추천영화

킹스 스피치: 신뢰가 가져다준 기적

겁을 먹었어, 자기 그림자에 짓눌려서. - 로그 -



‘킹스 스피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말더듬이 왕이었던 ‘조지 6세’의 이야기다. 영화는 유약한 인간으로 태어나, 한 나라의 국왕이 되어야 할 한 남자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나치에 대항하여 영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엄청난 무게의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그는, ‘말더듬이’로 태어나 많은 고난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적의 수장이었던 히틀러는, 화려한 연변을 구사하며 독일 국민의 정신적 무장을 이루었으나, 조지 6세는 간단한 연설문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틀러에 맞서 영국 국민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라도, 조지 6세는 ‘말더듬증’을 치료해야만 했다. 이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던 도중, ‘라이오넬 로그’라는 의사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라이오넬과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다. 왕족 출신인 그와 평민 출신인 의사 사이의 벽이 그들의 화합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

오넬이 조지 6세와 진정한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 신분차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버티’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둘 사이를 가로막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라이오넬은 조지 6세를 치료하면서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것이다. 화려한 왕족의 모습 이면에는 정해진 행동양식을 강요받으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던 조지 6세가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긴 마음의 그림자가 조지 6세를 ‘말더듬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라이오넬은 ‘격려와 공감’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먼저 신분에 상관없이 조지 6세의 진솔한 친구가 되어 신뢰를 쌓았다. 그 후 공감의 태도를 통해 가슴 속에 묻어둔 그의 상처를 밖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따뜻한 격려를 통해 치료했다. 즉, 그의 말하지 못했던 마음 속 상처를 들어준 후, 진심어린 격려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치료과정을 통해 조지 6세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할 용기를 얻게 되고 비록 완벽한 연설을 하진 못할지라도 자신감을 얻어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

혼자였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그의 아픔을 평민 출신 의사인 라이오넬의 도움으로 극복한 순간, 조지 6세는 진정한 영국의 왕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연설은 히틀러와 같은 화려한 기교는 없을지라도, 장애를 딛고 일어난 불굴의 의지와 국민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자는 왕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를 통해 국왕과 국민이 하나 된 영국을 만들었으며 히틀러를 쓰러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55기 사관생도 강재원



책 소개

90년생이 온다

지은이: 임흥택 / 출판사: 웨일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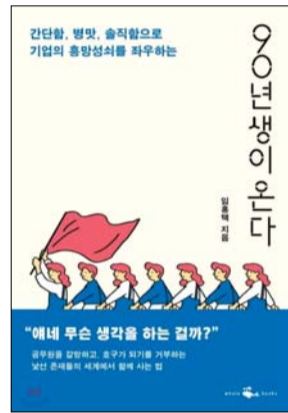
세대 차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 현대에서 세대 간 간극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책 ‘90년생이 온다’는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90년대 생들이 이전 세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며 앞으로 기성세대가 신세대인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90년생은 ‘칼퇴’를 외치며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책보다 스마트폰과 더 가깝게 지낸다. 5음절 이상의 단어는 축약하여 줄임말을 만들어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는 뜻)처럼 모순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기성세대는 우리를 향해 ‘도전정신이 부족하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금융위기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자 다짐하던, 스마트폰의 등장과 입시교육으로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는 것이 습관이 된, 꽤 괜찮은 ‘드립’이었다며 동료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1990년생들. 단순히 현상만을 보고 1990년생을 ‘9급 공무원 세대’, ‘도전정신이 부족한 세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의 교육담당자와 마케터를 거친 1982년생의 저자는 1990년생과 다각적으로 소통하여 독창적이고 현실감 있게 밀레니얼 세대를 그려나간다. 더불어 기성세대가 되며 느끼는 세대교체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며 단순히 1990년생들만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성세대가 신세대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 동시에 조금은 ‘특이한’ 그들에 대한 위로와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1990년생



들에게 건네고 있다.

기존의 잣대로만 바라본다면 세대 간 갈등만 심화될 뿐, 조직과 사회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장님께서는 이번 취임사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재육성, 소통과 긍정의 병행문화를 정착해 국가방위에 기

여하는 초일류 육군3사관학교”를 강조하셨다. 소통은 이해에서 출발한다. 대다수가 1990년대생인 생도들은 2000년대생의 용사들을 소대원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책을 읽은 생도들이 2000년생의 용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지,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신세대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생도 칼럼



인생의 전환점



생도 윤준엽(6중대 / 55기)

사람은 한결갈 수 없다. 처음 간직했던 초심을 수년 동안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보았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누구나 하루의 수십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수많은 감정 속에서 나는 육군3사관학교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열정이 넘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얼마 전까지 무기력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사람은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무기력이 다가오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판이 있다. 내가 이 학교에 몸을 담아 온 1년 4개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무기력함이 다가와 나를 인도하려고 했었다. 그 무기력함을 따라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첫 무기력을 경험했을 때 몹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열정을 가지고 입교를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겪는 감정과 기분이었기에 어떻게 통제하고 받아들일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답답함이 목을 죄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시간이 점점 흘러 여전히 무기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를 자극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동기생도가 부상으로 인하여 휴학하게 된 것이다. 그 동기는 앞방을 사용하고 있었고 18-1차 일반학기 초기에 환자로 있었던 나와, 어느 정도 친

분이 있던 동기였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흘린 그의 눈물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의 지난 생도생활은 눈물을 흘릴 만큼 가치가 있었는가? 작은 시련이 쌓이고 쌓여 ‘포기’와 ‘무기력’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건 아니었을까?

그 후 내 마음가짐은 180도 변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벅차고 뜨거운 진심인 생도생활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1년이 흘러갔고 나에게 무기력함이란 어 느덧 먼 주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준 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긴

시간동안 항상 곁에 있어준 동기들과 선배 생도들, 훈육관님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한다.

생도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나와 같았던 무기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지속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것을 디딤돌 삼아 이겨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 같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믿고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동기·후배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입관의 날까지 나는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보려고 한다.



독자투고

4차 산업혁명과 회전익 혁명



소령(진) 이 민재
(육군항공학교 전술학교육대 전술학교관)

기동전의 저자 심프킨은 공중기동부대가 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회전의 혁명'이라고 표현했으며 회전의 혁명에 의해 탄생된 공중기동부대는 기갑 및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전 수행의 주체가 되어 왔다. 이러한 혁명을 거친 후 지금까지 육군항공은 입체고속기동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차기 전술제대에서 기동력의 핵심은 육군항공이 될 것이다.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의 지상 작전 수행개념 중 "전 전장"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

는 전투영역이다. 지상부대에 적시에 적절한 전투력을 제공하는 회전익 항공기 운용 개념은 심프킨이 제시한 회전의 혁명의 틀 안에서 운용해도 큰 제한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미래전에서의 공중 공간 확보는 현재보다 더 중요하며, 공중에서의 꾸준한 전투력 투사가 지상 작전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발적인 전투력 투사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요소인 초연결·인공지능·신기술과 연계한다면 지속적인 전투력 투사가 가능함으로써 지상부대의 상공에서 즉시적인 전투력 투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두 번째 회전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충격과 큰 변화가 올 것이다.

BCTP훈련 결과를 보면 공중강습작전의 성공률은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공중강습작전부대 생존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시행, 공중 기동로 및 목표지역상사 전 적 위협 제거 미흡, 충분한 여건조성 미흡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항공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될까? 가장 큰 이유는 샌

드위치처럼 촘촘하게 쌓여있는 적 방공무기를 아군의 항공기가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부족하고 기종이 노후화되어 생존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회전익(유인) 항공기에서 무인항공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무인항공체계로 인해 공중 기동로 상에 배치된 적의 대공화기 및 방공부대를 실시간 식별하여 타격,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무인기의 자폭을 통해 제압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육군항공 운용 전 반드시 필요했던 포병의 SEAD사격이 이제는 회전의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다수의 무인항공기로 대체됨으로써 포병운용의 융통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회전의 항공기는 운용시간이 약 2H~3H 내외로 작전수행 간 제한이 많다.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무인기 충전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회전의 항공기에 적용한다면 지상에서 지속적인 레이저 조사를 통해 지상부대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개념으로 육군항공을 운용해야 할까?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초연결 상태가 된다면 스스로 생존성을 강구하며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항공작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SEAD사격은 불필요한 요소가 되어 육군항공의 작전 수행의 템포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공중에서 투사 가능한 나노 무인항공기 체계를 통하여 아군 지상부대의 적 방어진지 극복시 공중에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개념, 즉 지상부대와 함께 기동하며 후방에서 현재의 반응시간 몇 배 빠른 실시간 화력을 제공해 주는 개념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의 기갑·기계화 부대보다 몇 배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회전익 항공기의 장점을 살려 서해 또는 동해로 신속히 우회하는 작전적 기동을 실시한다면 적의 심리적 마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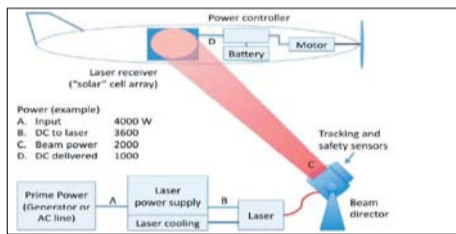
육군항공은 지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마찰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존재지만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기술과 개념, 조직구조가 함께 발전한다면 제목과 같이 대한민국 육군항공이 두 번째 회전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랜린 프로젝트(유인기를 통한 무인기 발사 및 회수)



나노 무인 항공기



레이저로 무인기 충전하는 기술



중국 레이저무기체계 'LW-30'

독자투고

정에 장교 향한 힘찬 담금질



대위 강준구
(군사훈련처 전술학교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본교 55·56기 생도들이 2019년 충성하계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생도들은 중간고사와 체력단련 그리고 군사교육 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우리 군사훈련처 교관들도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정에 장교를 육성한다는 사명감 아래 군사훈련 준비에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술학 교관인 나는 이번 충성하계군사훈련 중 55기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소대 전투지휘 및 훈련 지도능력을 숙달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특히 수없는 토의와 국민의 신물인 '소대 전투훈련 모델'을 적

용하는 것에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 야전 자료수집을 통해 야전에서 밤낮없이 임무수행 중인 소대장들을 만나봤다. 소대장들은 자신의 양성과정 기간을 돌아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훈련을 했으면 야전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전술학과 교관들은 수많은 토의와 연구를 통해 '전시전환-전술적 부대 이동-집결지 작전-쌍방훈련(공격↔방어)'으로 이어지는 야전과 연계된 실전감 있는 훈련모델을 정립했다. 특히 이번 군사

훈련은 과제 단위 훈련을 과감히 탈피해 야전에서 시행되는 훈련모델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전술적 부대 이동, 철야 쌍방훈련, 야지 숙영 등이 포함돼 훈련하면서 현실감 있는 전투감각을 체득하고 야전 적응력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가?" "나의 전술적 과오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대 전술훈련 모델 안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술을 고려한 목표 일대에 적 사복철조망 설치, 기동로 상 매복진지 구축, 통제탑 기능 개선 등 실전적 전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군사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 전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교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훈련이 끝나면 군사훈련처장 주관으로 일일 단위 안정성 평가와 실시간 온도지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통제로 내실 있고 안정감 있는 훈련을 할 예정이다.

충성하계군사훈련이 시작되면 하늘 위 태양은 우리와 힘 겨루듯 더 뜨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강인하고 당찬 장교가 되겠다는 일념 아래 검게 그을려 가는 생도들의 열정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전문성을 갖춘 정에장교 양성을 위해 본교 생도들과 군사훈련처 교관들은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벗 삼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힘찬 담금질을 벌써 시작했다.



답하는 'WHY? 캠페인' 구현을 위해 소대 전투작전 실시 중 생도들의 모든 작전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훈련 종료 후 통합 사후강평에서 생도들에게 전술적 과오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지휘통제 능력과 전술관을 갖출 수 있

사설

생도들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갖게 하자

是非非非是是
是非非是非非是
是非非是是非非
是非非是是非非
是非非是是非非
是非非是是非非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하니, 이것은 옳음이 아니고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하니, 옳지 않음 아닐세. 그른 것 옳다 하고, 옳은 것 그르다 하는 것, 이것이 아닐진대, 옳은 것 옳다 하고, 그른 것 그르다 하는 것, 이것이 是非(아니냐) 다른 것 같다고 같은 것 다르다 하니, 같고 다를 게 다르고 같은 것 다르다 하고, 다른 것 같다 하니, 다르고 같음이 같구나

〈홍민중의 <소화시평(小華詩評)> 중 김시습의 시사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급박한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매번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갈등하게 된다. 세상이 복잡다단(複雜多端)해지다 보니, 명확하게 시비(是非)를 가릴 수 있는 잣대조차도 모호해졌다. 예전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던 일들이, 현대에서는 당연한 일들로 치부되기도 하고, 진리라고 믿었던 사실들이 그렇지 않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모든 사상이나 가치관의 다기화로 인해 어떤 것이 정통(正統)이고, 어떤 것이 사이비(似而非)라고 부르기 애매모호할 만큼 판단력의 부재와 과잉이 동시에 혼재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스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고문진보(古文眞寶)』의 저자이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명인 당나라의 문인 한유(韓愈 768-824)는 「사론(師論, 스승이란 무엇인가?)」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古之學者 必有師 師者 所以傳道授業解惑也(고지학자 필유사 사자 소이전도수업해혹야 옛날부터 배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 주고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다)」

스승의 역할 중 가장 먼저 떠올러지는 부분이 바로, '수업(授業)' 즉 학업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수업은 학문을 비롯하여, 단순한 기술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사교육 영역에서 이 역할이 더 커져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두 번째 잘 알려진 역할이 바로 '전도(傳道)'이다. 즉 제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다. 사관학교 내에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교관, 훈육관들이 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유가 말한 스승의 세 번째 역할이 바로 '해혹(解惑)', 즉 의심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事物(사물, 여기서 인문사회적 관계, 자연적인 원리)의 이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혜안(慧眼)을 가지게 되면, 사물의 표면인 사실(事實, Fact)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물의 이면인 진실(眞實, Truth)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혜안은 미래 육군을 대비한 예비 장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앞에서 얘기한 是非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해혹은 사실 상 스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져 왔던 것이다.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생도들이 가지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교관, 훈육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 방법들을 통해 이르는 중간 목표는 아래 두 가지 정도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생도들이 '시의(時宜, 그 시기에 맞는 마땅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의'는 그 시기의 가장 적절한 행동, 생각을 의미한다.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Case by case', '우유부단(優柔不斷)'으로 비쳐 질 수 있다. 하지만 시의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힘들겠지만 생도들은 그 '시의'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학교 구성원, 즉 교수자들은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도들은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추는데 근접할 것이다.

둘째,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절대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다르다고(different) 하여 이것이 틀린 것이(wrong)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생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이 들의 사고는 더욱 유연해지고,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이다.

생도들에게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혜안을 가지도록 하려면, 교수자(교수, 교관, 훈육관) 스스로가 그 능력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생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수자 역시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 '효학반(敎學半)'의 당연한 가르침을 향시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세종대왕이 생각나는 5월 어느 청명한 날에 스승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비선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충성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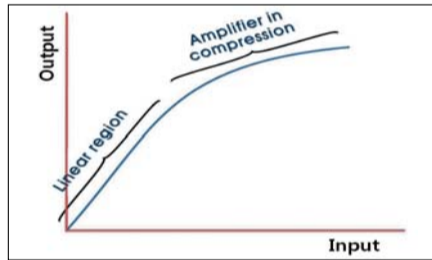
중령 두 석주(이공학처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리더십센터장)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심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비선형(nonlinear)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인간의 뇌는 단순한 선형적(linear) 입직선의 관계식을 그리는데 익숙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00원일 때 2잔은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5잔은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 압력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1차 함수처럼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증가되거나 감소한다.



커피 가격(선형)



앰프의 입출력 특성(비선형)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비선형의 관계들로 채워져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례들을 들여다보자.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크와 앰프(AMP)는 사람의 목소리를 3배, 5배 등으로 원하는 만큼 증폭해 주기 때문에 다분히 선형적으로 동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선형 동작은 일정한 범위에서의 음성 신호 입력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설령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똑같이 3배 또는 5배처럼 증폭되지는 않으며, 출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비례적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 비선형의 출력을 나타낸다.

최근 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의 발전 속도 역시 그렇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4:1로 이겼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은 언제쯤 우리 인간을 앞지를 것인가? 인간이 선호하는 선형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ENIAC)이 발명된 1946년부터 알파고를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또는 2~3배 정도 빨리 AI가 우리를 앞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AI의 발전 속도는 $y=t^2$ 등과 같은 비선형의 관계를 따르기에 인간의 예측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요즘의 기후변화는 어떠한가? 삼한사온

(三寒四濶)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후 특성으로 3일은 추운날씨가 지속된 후 4일간 따뜻한 날씨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즘 날씨에서 이런 선형적 특성을 대표하는 삼한사온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하루의 날씨 속에서도 추움과 더움이 공존하는 등 비선형적 기후 특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인간은 인지심리적 특성상 선형적 예측과 분석을 보다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이 항상 선형적인 것이라는 선입관 또는 편견에 빠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의 대부분 자연적 현상들은 $y=ax+b$ 와 같은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앰프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등과 같이 $y=a_1x_1^2+\dots+a_nx_n^2+a_n$ 등과 같은 다양한 입력 요소들의 고차 함수 또는 그 이상의 복잡한 특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비선형 특성을 포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성과 확실성이 아닌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장의 환경 변화를 바라보자. 기존의 재래식전력을 통해 수행되던 선형 전투의 모습은 정밀유도무기의 정확성과 사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비선형 전투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 공간으로의 입체적 확장뿐만 아니라 사이버전과 전자전 등 다양한 비물리적 전장으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비선형 전장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 함양, 새로운 전장공간의 특성 분석 등 많은 전장 요소들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최근 군에 입대하는 용사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들의 학력 수준과 가치관, 문화 등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다양성이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을 선형적 리더십이라 부를 수 있다면, 현대의 용사들을 효과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선 그들의 다양성과 개성 등에 기초한 또 다른 모습의 비선형 리더십과 역량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자연현상에서 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진 비선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선형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지휘결심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면, 비선형적 요소들의 경계지점에서 선형적 특성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다양한 잠재적 효과들이 상호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음도 예측할 수 있다.

유월

시인 저명인사 칼럼

장 병 집(인양대학교 총장)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백성이 나라를 위하는 정신이 어느 정도 살아 숨 쉬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이준 열사님의 가르침이 새삼 떠오르게 하는 6월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된 생활은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애國忠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

는 6월, 우리는 이를 일컬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애국선열들의 충절을 추모하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함과 동시에 그분들에게 진 우리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보자

공익 위해 헌신한 분들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국력 결집되고 국가적 힘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었다. 슬한 시련을 극복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힘 역시 바로 선열들의 민족정신과 백성들의 자존심이 밑받침 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나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채 못 되어 우리 민족은 6·25라는 참상을 경험해야만 했고 이 동란으로 40만 명이 넘는 젊은 목숨이 세상을 떠났다.

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달이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정신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행동 중에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라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건강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국민의 가치관도 사회 정의도 바로 설 수 없다. 나라를 위한 헌신이 진정 명예로운 것이 될 때 국민들의 장래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보훈'은 국민의 기본 도리이다. 즉, 선열들의 희생을 현재에 되살리고 미래를 밝히는 정신으로 세워나가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임이라는 것이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애국 충절의 잠재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난 극복을 묘사한 영화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우리,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뜨거운 함성으로 '대~한~민~국'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미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호국과 보훈의 정신으로 조금만 더 승화시킬 수 있다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까 싶다.

자신의 안위를 접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의로운 삶들이 모여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왔음은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국력이 결집되고 국가적 힘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주변의 보훈가족들을 돌아보는 보훈의 달 6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마트드론 시대와 차세대 국방 과학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②

제갈덕주(꿈창적연구소소장)



'드론'은 원래 무인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기계의 최종 진화형은 통칭 '로봇'이라고 불린다. '로봇'은 넓은 의미에서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로봇'이란 생명체의 움직임을 닮은 이동체를 나타낸다. 그러나 형상과 관계없이 작동 원리만 놓고 보면 '자동차', '비행기', '배'와 같은 수송수단도 미래사회에서는 로봇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무인 기술'을 탑재한 비행체를 '드론'이라 부른다.

'드론'의 핵심 기술은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동작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조정과 관련된 것이다. '동작'과 관련해서는 비행기의 작

동 원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비행이란 물리력을 활용하여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같은 비행체는 추진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기 저항으로 비행한다. 이때 추진력을 활용한 비행체는 진행 방향에 대한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약을 적게 받는 것이 헬리콥터이다.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한 양력(揚

力)에 의해 부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헬리콥터에도 전후의 방향이 있어 제약이 많다. '드론'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한 비행체이다. '드론'은 회전 날개 4개를 활용하여 부상력을 획득하는데, 그 각각의 회전 날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런 구형 방식을 통해 드론은 방향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 기술이 핵심이다.

무인 기술은 크게 '원격 제어 기술'과 '자율 비행 기술'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조종자가 드론의 가시권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과 비가시권에서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초창기에는 가시권 내부에서 조정하는 기술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들어 원격 조정 가능성이 지면서 점차적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원격 제어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비행으로 작동하는 드론 개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드론이란 궁극적으로 차세대 미디어 기술(가상현실)과 지능형 로봇 기술(딥러닝)이 융합된 '드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드론'과 관련된 차후 국방 과학은 '동작'과 '조정' 같은 구형 방식이 아닌 '은닉'과 '경계' 같은 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닉'이란 드론의 '은폐', '엄폐' 기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고,

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G가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 중인 4G의 속도만으로도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5G도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5G기술이 차세대 산업 촉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드론전'에 대한 대비책 또한 전자통신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까지는 드론이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급기에 해당하는 지금부터 모든 드론에 대해 '블록체인'을 도입한 라벨링을 실시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경계 근무가 요구되는 지역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상용화될 무인 이동기기에 대한 고유 일련 번호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세계는 이제 평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스마트드론의 도입은 그러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방 과학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평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방 과학 정책 수립해야

'경계'는 구역 내의 '경비', '경호' 기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미래전의 양상은 '공격자' 중심에서 '방어자'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드론의 경우 크기와 속도 그리고 비행 고도에 있어서 '새'와 흡사한 측면이 있어 레이더망으로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드론 작전에 대비한 방어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그 핵심은 전자통신기술이다. 특히 5G

전쟁과역사 <3>

왕건과 견훤의 공산전투



대령 신성재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 겸 교무처장)

특정 지역에서 발발하는 결정적인 전투는 전술적인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와 전략이 보다 본질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927년 10월(혹은 11월) 대구 팔공산에서 발발한 공산(公山) 전투는 외교와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한 전투였다. 이 전투는 동 시대의 고창(古昌 : 안동) 전투 및 일리천(一利川 : 선산) 전투와 더불어 후삼국 통일전쟁의 3대 전투라 명명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외교·전략적 배경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궁예와 달리 선린 외교를 지향했다. 궁예가 신라를 적대시했던 반면, 왕건은 918년 건국 초부터 우호적으로 대했다. 후백제왕 견훤과도 친선 관계를 모색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고려와 신라는 가까워졌고, 후백제는 멀어졌다. 고려와 신라의 관계는 925년 10월 고을부(高鬱府 : 영천)를 지키던 장수 능문(能文)이 고려에 항복하면

서 더욱 우호적으로 변했다. 이후 공산 전투가 발발하던 927년에 이르러서는 동맹적인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견훤은 이를 당면한 위기이자 약체국이던 신라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기회로 인식했다. 외교적 요인과 더불어 왕건이 추진하던 전략도 전투의 발발과 무관치 않다. 927년 4월, 왕건은 수군으로 남해안에 위치한 강주(康州 : 진주)를 원정했다. 강주와 그 인근 지역이 고려의 영향권으로 들어왔고, 해상권의 범위도 남해상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왕건이 원정작전을 통해 거둔 전략적인 성과는 강주 진출을 계기로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병참 운송망을 개척하게 된 것이었다. 왕건이 해륙상으로 병참 운송망을 형성하면서 후백제를 포위·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자 견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발발과 전개 과정

왕건이 경상권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자 견훤은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방책 마련에 부심했다. 927년 9월, 견훤은 고을부를 습격하고 경주를 위협했다. 위기에 처한 신라 경애왕은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왕건은 군사 1만 명을 파견했다.

고려군이 출동하자, 견훤은 곧바로 경주를 공격했다.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던 경애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경애왕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제례를 지내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왕건이 보낸 고려군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후백제군의 복병에 참패를 당한 것인지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던 것인지 당대 역사서는 침묵하고 있다. 경애왕의 죽음 소식을 들은 왕건은 대노했다. 그는 사절을 보내 조문하는 한편 몸소 정예기병 5천을 이끌고 출병했다. 왕건과 견훤이 격돌한 곳은 공산동수(公山桐蘂)였다. 왕건은 이곳에서 견훤의 유인기만전술과 각개격파전술에 걸려들었다. 사세가 급박해지자 고려의 대장 신승겸과 김락이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면치 못했다. 왕건은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다.



▲ 신승겸이 전사한 곳에 세워진 표충단(대구시 동구소재)

조선 인조대 영의정을 지낸 신희(申欽)이 저술한 상촌집(象村集)에는 왕건의 목숨을 구한 신승겸의 행위에 대해 영웅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공(신승겸)은 대장으로서 얼굴이 여조(麗祖 : 왕건)와 비슷하였는데, 대신 죽겠다고 청하여 어거(御車)를 타고 나가 싸우다가 죽음에 여조가 벗어날 수 있었다. 견훤의 군사들은 공을 여조로 알고 머리를 취해 갔다. 여조는 공의 시신을 찾아 장인에게 머리를 만들게 하여 의복을 갖추어 입히고 광해주(光海州 : 춘천) 소양강 비방동으로 옮겨 장사지냈다.” 왕건이 구사일생할 정도로 공산전투는 고려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전투였다.

결과 및 영향

공산 전투의 결과는 전쟁의 향방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투에서 승리한 견훤은 경상도 지역에서 우세권을 거머쥐면서 왕건이 추진하던 전략을 좌절시켜 나아갔다. 견훤이 강주를 탈환한 것은 남해안을 통해 경북 내륙으로 북상하려던 고려의 도전을 물리치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강주를 상실당한 고려로서는 남해안 지방과 경북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병참 운송망을 더 이상 구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북 지역에서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도 위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건은 이듬해 7월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삼년산성(三年山城)을 공격했다. 왕건이 이 지역을 공격한 것은 경북 내륙지역에 집중되던 견훤의 군사적 관심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왕건의 삼년산성 공격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견훤의 경북 지역에 대한 공격은 거듭되었고 결국 이 지역의 핵심 거점인 의성부(義城府 : 의성)마저 함락되면서 고려의 방어선은 안동과 그 인근 지역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경북 지역에서 고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후백제가 우세권을 장악한 상황은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싸움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왕건과 견훤이 930년 정월에 혈전을 벌인 고창 전투는 927년에 발발했던 공산전투의 결과와 영향속에서 마련되어지고 있었다.

지역문화탐방 <2>

팔공산의 매력



▲ 팔공산전경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 태백산맥이 낙동강, 금호강과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큰 산으로, 크기만큼이나 많은 볼거리가 있는 산이다.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있고 코스도 무난하여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라 우리에게 친근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후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려의 많은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팔공산의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한쪽에 울창한 숲과 다른 한쪽으로 계곡이 흐르는 팔공산 입구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면 입구에서부터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 신라가 팔공산을 왜 신성시 여기고 국가적 제사를 지낸 곳인지 자연스럽게

넘는 거대한 여래상이 머리 위로 깃을 쓴 듯 판석을 엮고 있다. 이 모양에서 관봉석 조여래좌상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불

눈에 담을 수 있고, 산책길 같은 산행길이라 대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가산도 추천하고 싶다. 산 정상부에는 가산과 가산산

팔공산의 유래 : 신라 말기에 후백제 견훤이 경주를 공격하자 고려 태조 왕건이 정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도우러다가 도리어 이곳에서 후백제군에게 포위당하여 전세가 매우 불리해진다. 이때, 왕건의 부하장수인 신승겸이 왕건으로 가장하여 견훤의 군사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그 뿐만이 아니라 김락·복지겸·홍유인 등 8명의 부하장수도 전사하였는데, 그 틈을 타서 왕건은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다고 한다. 팔공산은 이러한 장수 8명이 순절한 곳이라는 의미를 따서 붙여지게 되었다.

깨닫게 된다. 산 중턱의 가파른 언덕을 뚫고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파계사, 동화사, 부인사, 은해사 등의 다양한 절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팔공산만큼이나 유명한 장소인 갖바위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장소이다.



▲ 관봉석조여래좌상(일명 갖바위)

갖바위의 정확한 명칭은 관봉석조여래좌상이다. 좌대의 크기를 포함해서 5m가

상이 만들어진 것은 신라 후대이지만 그 위에 깃이 씌워진 것은 고려 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매년 입시철 때 언론에 어김없이 등장하여 많이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소원 중 한 가지는 꼭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 가산산성 전남문

또한, 포근하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에 팔공산 종주능선과 팔공지맥을 한

성, 가산바위 등 절벽과도 같은 높은 산봉우리들을 성곽으로 연결하여 천혜의 요새처럼 되어 있다. 특히 가산바위에 올라 그 인근의 다부동을 내려다보며, 치열했던 6·25 전쟁 낙동강 격전의 현장을 상상할 수도 있다.

팔공산은 산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 암벽등반, 캠핑장, 사랑의 터널, 케이블카 등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팔공산은 덩치가 큰 산인 만큼 치산계곡, 수태골, 폭포골 등 많은 계곡들을 거느리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도 있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무더운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계곡까지 가지고 있는 팔공산으로 이번 여름여행(휴가)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56기 기자생도 권정우

3km 달리는 이렇게!

건강상식

중령 안경일(군사교양학처 체육학과장)



매년 4월이 찾아오면 군에서는 간부 체력검정이 시작된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부대 곳곳에선 체력검정(3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는 간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는 운동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충분치 못한 체력단련은 체력검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체력검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간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3km 달리기의 경우 위와 같은 위험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3km 달리기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전, 안전통제 및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부들에게 설명하며 물어보면, 대부분 3km 달리기 중 극한에 도달하였을 때 느끼게 되는 호흡적인 통증이 가장 두렵다고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간부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호흡적인 통증을 최소화하고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3km 달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자

3km 달리를 실시할 때 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몸이 출발과 동시에 불편감과 통증, 피로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선 준비운동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나 본 측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자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준비운동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준비운동은 본 활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심장과 근육의 부담을 덜어 주며, 출발과 동시에 찾아오는 불편한 반응을 감소시켜준다.

충분한 준비운동은 에너지 소모가 아닌, 더 나은 기록을 위한 발판이 된다. 따라서 출발 전 10분~15분 정도 이따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야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다.

둘째, 극한 뒤에 찾아오는 편안함을 기억하자

달리기를 하다보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 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사점(Dead Point)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 때문에 3km 달리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참고 견뎌내면 세컨드 윈드(Second Wind)가 찾아온다.

세컨드 윈드란 호흡관리가 해소되고 피로가 경감되며 전체적인 편안함을 찾게 되는 시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반응의 순서를

기억하고 극한을 이겨낸다면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셋째, 전략적 페이스 조절을 하자

3km 달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출발과 동시에 전력질주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몸에 갑작스러운 부하를 주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페이스 조절이다.

3km 달리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 페이스 조절은 달리에 앞서 본인이 목표하는 기록을 염두에 두고 각 구간마다의 기록을 맞춰가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12분 30초 완주를 목표로 하여 1km 당 4분 10초의 속도로 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예시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하였던 몸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페이스 조절로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다.

성공적인 페이스 조절을 위해선 몸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첫 1km 구간은 4분 10초보다 조금 빠르게, 사점이 찾아 올 수 있는 1-2km 구간은 4분 10

초보다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리고 마지막 1km 구간은 세컨드 윈드 반응이 올 수 있는 구간임으로 정상 속도인 4분 10초에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몸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페이스를 조절한다면 호흡과 근육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달성에 성공할 것이다.

넷째,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을 유지하자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의 유지는 달리기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여 기록을 향상시킨다. 먼저 걸음 폭은 크지 않으면서 어깨와 몸에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뛰어야 한다. 턱과 머리는 높이 세우고 눈은 앞을 보며 뛰어야 한다. 상체는 곧게 세운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숙이며 팔꿈치는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며 주먹은 꼭 쥐지 않은 채로 두 손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에는 근육이 수축하는데, 이때마다 같은 쪽 다리를 내딛으면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된다. 호흡 방법으로는 흡수 걸음으로 뛰는 것이 좋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세 걸음, 내쉴 때 두 걸음 뛰면 총 다섯 걸음으로 흡수가 된다. 너무 어렵다면 들숨과 날숨을 두 번씩 하는 호흡법을 권한다. 두 다리의 내딛음에 맞추어 두 번 연속 들이마시고 두 번 연속으로 내뿜는 것이다.

다섯째, 운동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착지법을 익히자

달리기 시에 오는 운동 상해로는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정강이 통증, 아킬레스 건염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발 안쪽에 착지시키거나 발 바깥쪽에 착지시키는 것, 그리고 착지 시 허리 굽힘 등으로 인한 발의 착지 미숙으로 발생된다.

달리기 시에 적절한 위치에 발을 디디고 정상적으로 힐(뒤꿈치), 미드풋(중족), 포어풋(전족) 순으로 착지시켜 발에 작용하는 부하를 분산시킨다면 달리기 중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3km 달리에 앞서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행하고, 달리기 중의 신체적 반응과 이를



고려한 전략적 페이스 조절, 그리고 자세와 호흡법 등을 명심한다면 만족스럽고 안전한 3km 달리기 체력검정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3km 달리기의 여러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평상시의 꾸준한 운동이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검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운동이 되길 바란다.

